튜토리얼

5년 뒤 주인공은 복수를 하겠다는 강력한 사념이 종에 깃들어 부활을 하게 된다.  
부활을 하여 당황스러운 주인공은 자신이 모시던 신에게 지금의 상황을 묻는다.  
신이 말하길 주인공은 원한으로 인하여 다시 되살아났다고 한다.  
신에게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은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집을 찾아간다.

집이 있던 자리에 찾아간 주인공은 폭삭 무너져버린 집 잔해를 발견한다 이를 본 주인공은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이 복수를 다짐하고 여정을 떠난다.

산길을 거닐던 주인공은 갑자기 나타난 산적의 습격을 받게 된다.   
습격을 받은 주인공은 살기 위해 하나 둘씩 산적들을 죽여 나간다.

(튜토리얼 씬)

자신을 습격한 산적들을 모두 죽인 후 주변을 둘러본 주인공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알빠 없어서 그냥 가려던 찰나에 여인이 말을 걸어온다.   
여인은 주인공에게 감사를 표하고 함께 마을로 가자고 제안한 뒤 주인공과 함께 마을로 향한다.